



‘호주 청정 지역 타즈마니아의 프리미엄 레드’

데블스 코너 리솔루션 피노 누아

Devils Corner Resolution Pinot Noir

지역	호주 > 타즈마니아		
포도품종	피노 누아 100%		
알코올	13.8%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5-18℃		
테이스팅 노트	짙은 루비 레드 컬러로 입 안에서는 블랙 베리, 산도감 있는 체리와 프렌치 오크 통에서 오는 약간의 삼나무 향이 느껴진다. 와인은 쥬시한 느낌과 함께 감칠맛 나는 크리스피한 텍스처와 잘 다져진 특징으로 느껴진다.		
페어링 TIP	흰육류/흰육류/부드러운치즈/단단한치즈		



제품설명



Resolution 레인지는 타즈마니아 지역 중에서도 프리미엄 파셀을 선택하여 손 수확을 한 프리미엄 레인지이다. 기존 레인지 보다 복합성과 견고함이 탁월하며 산도감은 장기 숙성을 해도 될만큼 강건하다. 포도의 75%는 Hazard 빈야드에서, 25%는 Kayena 빈야드에서 손 수확한 리즐링을 선별하여 수확해 차가운 온도에서 발효를 진행시켜 신선함과 아로마틱을 극대화한다.

특히, 데블스 코너의 피노 누아는 그 퀄리티와 명성을 인정 받고 있어 매 빈티지 출시와 함께 판매가 매진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2020 글로벌 피노 누아 마스터에서는 Gold 메달을 수상하는 등 전 세계적인 인기로 한국에 오직 1,200병만 수입된다.

와이너리



132년 역사를 보유한 호주의 Top 브랜드인 브라운 브라더스가 2000년에 새롭게 소개한 호주 타즈마니아 지역의와인이다. 1999년 타즈마니아 북부의 Tamar Valley Kayena 빈야드에서 첫 포도를 수확한 후 2005년 부터는 프리미엄 빈야드인 Hazard 빈야드에서 포도 수확을 시작했다.

타즈마니아는 해양성 기후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서 포도를 천천히 익게 한다. 이러한 기후적인 특징으로 타즈마니아 와인은 산도감을 잃지 않으며 신선하면서도 균형 잡힌 와인을 생산해낸다. 전체 생산량의 5%만 해외로 수출되며 95%는 내수에서 소비될 만큼 각광 받는 와인이다.

데블스코너가 위치한 지역은 협곡이 끝나면서 바다로 이어지는 호주 타즈매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이지만 거센 바람, 험한 파도가몰아치는 지역으로오래 전부터 배가 침몰되어 '악마의 코너' 로 불리웠으며 레이블 디자인에 이 스토리를 담아 호주의 아티스트에 의해 탄생 시켰다. 또한 데블스 코너는 Australia Iri에 의해 데블스 코너는 타즈마니아 No.1 브랜드로 선정, 2022 James Halliday에 의해 4.5 Star를 받는 등 그 퀄리티를 인정 받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